



전웅태, 국제근대5종연맹 최우수선수상 아시아선수로 첫 수상



글 | 박광재

한국체육언론인회 편집위원/이사
현 대한근대5종연맹 이사
전 문화일보 체육부장

“벌써 이런 상을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12월 11일 국제근대5종연맹(UIPM) 총회(키프로스 리마솔)에서 2018년 최우수선수상을 받은 전웅태(23·광주광역시청)는 목표인 올림픽 메달을 의식한 듯 열렬렬한 표정이다. UIPM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전웅태에게 2018년은 최고의 한 해였다.

전웅태는 “올해 목표였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고 다른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기억만 남은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며 “오히려 2019년에도 이만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고 말했다.

어느새 한국 남자 근대5종의 간판선수가 된 전웅태는 2018년을 세계랭킹 1위로 마무리, 더 이상 도전자가 아니다. 근대5종 강국 유럽 선수들의 견제를 받아내야 하는 챔피언의 자리에 오른 것. 이 부문이 전웅태로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전웅태는 “처음 수상 얘기를 들었을 때 얼떨떨했죠. 부모님께서도 생각만큼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독님께서 더 기뻐하시더군요. 아마 최우수선수로 뽑힌 게 처음이라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나도 그랬어요”라며 웃었다. 행사장에서 빼어난 외모 때문에 외신기자와 UIPM 관계자



들로부터 “한국의 K-팝 가수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전웅태는 “그런 질문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았고요,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선수로서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라면서 “이상을 벌써 받아도 되나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죠”라고 거듭 겸손했다.

그는 “근대5종 종목 자체가 한 번 우승한다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실제로 시상대 위에 오르니 자부심과 뿌듯함이 동시에 밀려 왔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큰상을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근대5종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는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고 말했다.

UIPM 2018년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후에도 곧바로 인도네시아에서 국가대표팀 전지훈련에 참가한 전웅태에게 2019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다. 2020 도쿄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에게 올해는 올림픽 티켓 포인트를 따야하기 때문이다.

16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

전웅태에게 2018년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 한해였다.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개인전 우승을 차지해 UIPM 우수선수 6명 가운데 한명으로 선정된 전웅태는 지난 5월 형거리에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 월드컵 3차 대회서 우승하며 1년 만에 월드컵 정상에 올랐다. 이어 불가리아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따내고 6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월드컵파이널에서도 은메달을 획득,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해 월드클래스로 자리매김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화룡점정이었다. 대표선발전에서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던 전웅태는 아시안게임에서 1,472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근대5종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김미섭이 개인전 우승을 한 이후 16년만이었다.

당시 전웅태는 “올해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근대5종을 시작하거나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선수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까지 귀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쁩니다”면서 “성과를 낸 만큼 생각도 더 많아지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뒀지만 아쉬움은 있었다. 전웅태는 “승마에서도 감점 받지 않아도 될 7점을 감점 받았고, 레이저런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니까 가장 만족한 경기는 있을 수 없죠. 2018년 아시안게임은 내 목표를 향한 ‘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0년 도쿄올림픽 메달이 목표

전웅태는 “올림픽 포인트를 착실히 쌓는 것과 함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입상하는 게 2019년 목표입니다”고 밝혔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에선 폴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의 강세가 뚜렷하다.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근대5종 최강이지만 아직까지 올림픽에서는 메달이 없다.

당연히 전웅태의 다음 목표는 올림픽 메달이다. 사실 전웅태는 2016년 리우올림픽 메달 후보로 기대를 모았다. 본인 스스로 금메달도 가능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복합경기(사격+육상)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고도 최종 성적은 19위에 그쳤다.

“하룻강아지 같은 실력으로 금메달을 따겠다고 했던 걸 생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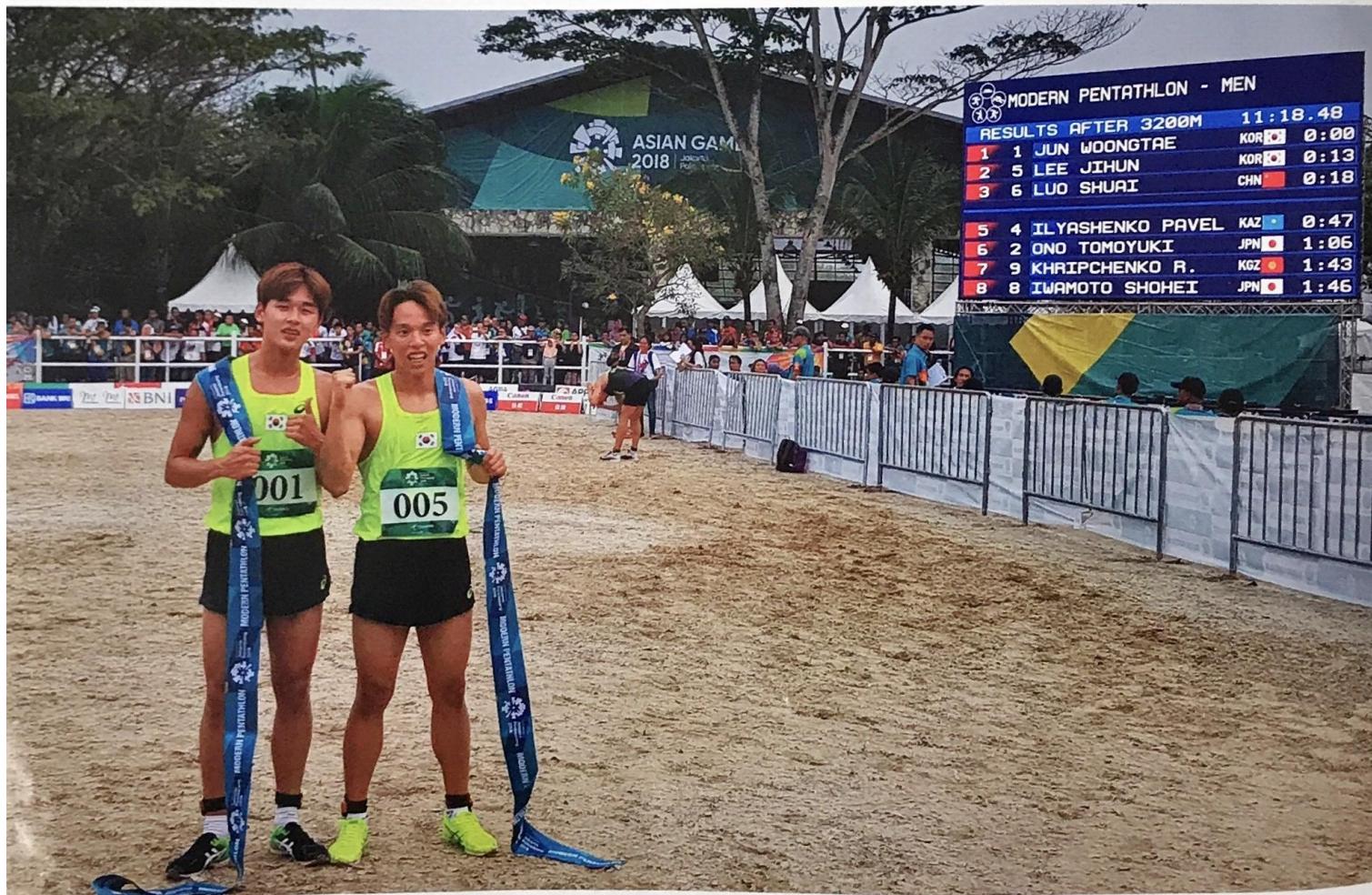
면 국민들이나 선배들이나 후배들 보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전웅태는 리우올림픽의 실패로 더욱 성숙해졌다.

특히 지난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올리면서 다른 외국 선수들의 견제가 유독 심해졌다는 전웅태는 “올해가 올림픽을 앞둔 중요한 해인 만큼 그동안 단점으로 여기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점들을 훈련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고 새해 계획을 밝혔다. 또 “펜싱에서 전술적인 부분이 약한 편인데 훈련을 통해 보완해나가려 합니다”면서 “무엇보다 부상 없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좋은 자극제가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전에는 그냥 해 보겠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지금은 경기를 하는 중간에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경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전웅태는 “특히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처음으로 해외 응원을 온 부모님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는 모습을 보고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야겠다는 좋은 자극이 됐다”라고 말했다.

어떤 이는 근대 5종을 수능시험과 같다고 표현한다. 대부분 스포츠가 한 종목만 잘하면 되는 본고사라면, 근대5종은 육상·

전웅태(왼쪽)와 이지훈이 인도네시아 반덴주 탕그랑의 에이피엠(APM) 승마센터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근대5종 남자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냈다.



사격·펜싱·수영·승마를 두루 잘해야 하는 수능시험과 같다는 말이다. 전웅태는 처음 출전한 2016 리우올림픽에서 육상과 사격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내고도 펜싱이 30위로 밀리면서 ‘올림픽 수능’을 망쳐버린 경험이 있다. 어느 한 종목만 특출하게 뛰어난다고 해서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없는 게 근대 5종이다.

1896년 근대올림픽을 제창한 쿠베르탱 남작이 “근대5종 선수만이 올림픽 대회의 진정한 선수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설파할 정도로 근대5종은 한 선수가 체력, 체능, 체격조건과 기술요건이 서로 다른 5가지 경기종목을 가장 뛰어난 신체능력과 정신력을 갖추어야만 정상에 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올림픽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리우올림픽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꼭 웃겠습니다”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연맹도 ‘골든 프로젝트’로 최상의 뒷바라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영으로 운동을 시작한 전웅태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서울체육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우연치 않게 근대5종이라는 종목을 알게 됐다. “선생님이 ‘근대5종 할래?’ 하고 물었는데, 크게 고민 않고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근대5종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는 올림픽 메달을 목표로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라는 그는 “어렸을 때는 마냥 재미있고 친구들과 기숙사 생활을 같이하는 것도 좋고 시합 나가는 것도 좋고 메달 따는 건 더 좋았어요. 그런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로는 내가 왜 이 운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는 제가 삶이 아닐까 해요. 저의 인생의 길에는 근대5종이 전부니까.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저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대한근대5종연맹(회장 박상우 LH 사장)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이 가능하다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인 2020년 7월까지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웅태를 비롯해 정진화(LH), 이지훈(제주도청), 김선우(한국체육대학교) 등 도쿄올림픽 메달 유망주들을 대상으로 ‘골든 프로젝트’를 가동, 뒷바라지에 연맹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에게 전담 코치진(트레이너) 6명 이외에 추가로 펜싱과 체력트레이너를 배정했다. 특히 펜싱은 종목의 특성상 1:1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3명이 붙었다. 덕분에 최근들어 펜싱 부문에서 실력이 부쩍 향상되었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연맹 회장사인 LH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에 몇 해 전부터 세계무대에서 한국 근대5종의 달라진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 국가대표팀에서 전웅태를 지도하고 있는 최은종(50) 감독은 이전과 달리 유럽 지도자들이 먼저 찾아와 인사를 건네고, 한국 선수들의 몸 상태와 경기력을 유심히 살피면서 알게 모르게 견제를 한다고 한다.

합동훈련 제안도 심심찮게 받는다. 최 감독은 “전웅태는 연맹



에서 주도하고 있는 ‘2020 도쿄올림픽 골든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다. 기존 멤버들과의 선의 경쟁을 통해 전웅태의 기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2019년 과제 중 하나다”면서 “펜싱에서 유럽 선수들을 상대로 얼마나 점수를 얻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태는 “근대5종이 비인기 종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인기 중에서도 진짜 비인기 종목이에요.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비인기 종목이 세계 대회에서 메달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처럼 이루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 ■